



## 새 시대에 맞는 광고 역할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해야

이정치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문화는 ‘한 시대의 유물이자 유산’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 기록될 문화·예술의 융성기를 맞아 21세기형 르네상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로 대변되는 K-콘텐츠부터, 글로벌 10위권의 관광산업, 그리고 95개국 이 ‘하나된 열정’으로 평창에 모이는 ‘2018 동계올림픽’까지, 글로벌 문화·체육·관광을 선도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써 오신 정부는 물론, 미디어 매체, 그리고 광고인 여러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는 고도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문화 콘텐츠로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를 순환시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제품과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그치지 말고 ‘산업과 기술, 그리고 문화까지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로운 시대의 광고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광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방송 플랫폼의 비대칭 규제는 해소하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선 통합시청률과 선진화된 ABC 정착을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광고 집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올바른 뉴스를 전달하는 건강한 저널리즘 문화 또한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기사 어뷰징, 가짜뉴스 등 유사언론의 폐해를 해소하여 광고의 기반이 되는 콘텐츠의 품격 향상에 노력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광고주협회를 비롯한 광고계는 대한민국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해법을 제시하여 광고가 우리 기업들의 위상과 가치를 세계 속에 높여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AA**